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공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lab@ntck.or.kr

국립극단 10+
청소년극

소년이그랬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국립극단 청소년극

2021 소년이그랬다

원작

툼 라이코스&스테포 난쑈(더 스톤즈 The Stones)

극본

한현주

연출

남인우

공연 기간

2021.5.21(금) - 2021.6.13(일)

공연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주최/제작

국립극단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10+

국립극단 청소년극 10+

여기 두 소년이 있다.

중학생 민재와 상식은 그날도 시시껄렁한 장난을 치면서
육교 위로 올라갔고, 불품없는 돌을 장난 삼아 힘껏 던졌다.

그 돌의 위력은?

그리고 여기 두 형사가 있다.

광해와 정도는 그날, 폭주족 청소년들을 쫓다가 민재와 상식을 만난다.

그 돌의 결과는?

형사 앞에 서게 된 두 소년.

이제 그들은 생전 처음 겪는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세상의 여러 시선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I feel that something has changed.
That I can't go back to the way things were..."

There are two boys. Minjae and Sangsik are in middle school, and one day they are just being themselves, cracking jokes and shoving each other as they walk up to cross a pedestrian overpass. And they pick up a rock, and just for fun, they throw it as hard as they can.

There are two police officers. One day Gwanghae and Jeongdo are chasing after teenage motor bikers who are speeding, and they meet Minjae and Sangsik.

What will happen because the boys threw a rock?

The two boys find themselves standing in front of the two police officers. Not only that, the two boys find themselves thrown into conflict and fear that they have never known before as well as the eyes of people who see them differently now.



김우진 KIM WOO JIN
배역 민재, 광해

연극 데뷔작



윤동원 YOON DONG WON
배역 상식, 정도

연극 <불꽃놀이> <행복한 왕자> <래러미 프로젝트>
<열하일기-세 가지 이야기>



남수현 NAM SOO HYUN
배역 민재, 광해

연극 <래러미 프로젝트> <뼈의 기행> <시장극장-여름과 연기> <예술이 죽었다> <선을 넘는 자들>
<보이 갯츠 걸> <오이디푸스-알려고 하는 자> 외



이문식 LEE MUN SIK
배역 상식, 정도

연극 <오빠가 돌아왔다> <사천의 착한 여자>
<트루웨스트> <반바지> <춘풍의 처> <한여름 밤의 꿈> <해피엔드> <라이어>
영화 <낙원의 밤> <평양성> <강철중 공공의적 1-1>
<마파도> <범죄의 재구성> <황산벌> <달마야 놀자>
방송 <조선로코-녹두전> <열혈사제> <이판사판>
<원티드> <기황후> <자이언트> <선덕여왕> <일지매>
<다모> 외



연주 기타
김정민 KIM JUNG MIN

판소리 <이방인의 노래>
창극 <나무, 물고기, 달>
무용 <주름이 많은 소녀>
스튜디오 완성 엔지니어



연주 기타
한지수 HAN JI SOO

작곡 LADU <Sugar> | 준오브집시 <Rabbit>
강의 <옆집 언니의 치즈기타>
공연 <재즈다X서문탁>



연주 타악
김솔지 KIM SOL JI

연극 <불꽃놀이> <선무당, 연극 잡는다>
<프로젝트공구이오 - 팔도비빔판> <프로젝트공구이오
- 국악쌈씨> <새로 쓰는 신민요-입소문> <어둠상자>
<행성에서 만난 미씨> <태백산맥> <가문장아기>



그 날도 우린 별 이유없이 어슬렁거렸고,
심심하면 이유를 만들어 뛰기도 했다.
그냥 그랬을 뿐이었다.

*2021 - 2011 소년이그랬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년이그랬다〉축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연극 〈소년이그랬다〉를 1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연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분들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연구를 토대로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새롭고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기성세대에게 어린이·청소년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화두와 고민거리를 던짐으로써 다양한 관객들의 이목을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무대에 오른 연극 〈소년이그랬다〉는 국립극단의 첫 어린이·청소년극으로서 2011년 초연 당시 촉법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을 연극의 형식으로 훌륭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재공연에서는 ‘소년과 형사’ 1인 2역의 주인공 역할을 신인과 중견 배우팀으로 구성해 기존의 청소년극 배우 역할의 한계를 넘어 세대 간을 연결합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위치를 새롭게 설정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연극을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연극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이 계속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출범 10주년과 〈소년이그랬다〉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두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극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 5. 2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이제 새로운 10년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공정’과 ‘소통’이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세계를 이끌던 시대,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와 일찌감치 작별하고, 치우침이 없는 공정함과 상호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인간의 감정을 기반으로 갈등과 공감을 빚어내는 예술입니다. 연극을 경험하는 동안 인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함으로써, 타인과 사회,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의 연극경험은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줄 자양분이 되고, 우리 사회에 밝은 등불을 비추는 실천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극의 기초가 되는 연극은 ‘어린이청소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청소년극’이 탄탄하게 기반을 갖출 때, 우리의 연극을 포함한 문화예술은 더욱 융성해지고 우리 사회는 보다 밝을 것입니다.

『국립극단』은 어린이청소년에게 문화와 미래를 돌려주고 한국 사회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2011년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개소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청소년극 제작과, 새로운 연극 형식을 찾는 실험과 탐색, 그리고 영유아극을 비롯한 주제연구 및 학술발간과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열악한 어린이청소년 연극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함께 했던 관객과 예술가, 그리고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다시 한 번 새로운 항해의 지도를 펼치고자 합니다.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립극단 청소년극』 첫 작품인 〈소년이그랬다〉를 다시 선보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단지 촉법 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청소년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관계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건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이 예술의 진정한 주체가 되기를, 그리고 연극이 그 뜨거운 현장의 불꽃이 되기를 희망하며, 관객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따뜻한 관심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소년이 건네는 돌맹이처럼...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첫 작품인 〈소년이그랬다〉를 다시 선보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국립극단 청소년극’이라는 이름으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 작품의 선정과 기획, 그리고 창작 과정에서 예술의 원천이자 동력이며 창작의 주체인 청소년과 늘 함께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삶이 담긴 청소년극을 새롭게 창작, 개발하고자 하는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최초로 드러난 작품이 〈소년이그랬다〉입니다.

〈소년이그랬다〉의 원작은 더 스톤즈(The Stones)입니다. 2011년, 한현주 작가와 남인우 연출을 비롯한 창작진들은 작품 속 인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예술교육팀과 함께 청소년과의 실천적 워크숍 및 리서치를 실행하였습니다. 4개월간의 사전 제작 단계 끝에, 〈소년이그랬다〉는 청소년의 심리·일탈·충동 및 청소년이 현실과 관계 맺는 방식과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를 향한 문제의식에 우리의 현실과 정서가 담긴 작품으로 새롭게 재창작되었습니다.

2021년, 〈소년이그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이 우리의 인생과 사회에 건네는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소년이그랬다〉는 장난으로 던진 돌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 속으로 관객을 끌어들여 청소년의 일탈 이면에 가려진, 그러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어떠한 것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소외된 존재, 죄의 무게, 용서의 주체,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생 지고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 진화한 〈소년이그랬다〉는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와 쉽게 답할 수 없는 삶의 아이러니 등과 같은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2011년, 청소년극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청소년이 연극을 통한 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소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앞으로의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지난 10년 뒤에 가려졌던 어린이청소년극의 가치와 의미를 오늘 다시 새겨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후 더해질 10년은 관객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두 소년이 숨차게 달리며 외쳤던 ‘자유’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담고 달려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극 관객’

감사합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김성제

초연 때 한 초등학교 관객이 남겼다는 짧은 관극평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찼찼하게 이야기를 끝내도 되냐고,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냐고...”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솔직하면서도 의미심장한 관극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작품에는 불편하지만 지속할 수밖에 없는 질문, 게다가 쉽사리 결론내릴 수 없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작품의 재판 장면에는 2011년이라는 시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앞두고 이를 2021년으로 바꿀지에 대해 연출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201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요. 이 작품의 질문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이를 둘러싼 논쟁은 더 첨예화되었습니다. 10년 만의 재공연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답을 내리기 위해 어떻게 애써왔는지.

극본 한현주

작 〈잔다리 건너 제물포〉
〈개천의 용간지〉
〈878미터의 봄〉 〈우릴
봤을까?〉 〈그 샘에 고인 말〉
외
수상 2011 제1회
벽산회곡상 〈878미터의
봄〉 | 2010 CJ영페스티벌
연극부문 최우수작품상
〈우릴 봤을까?〉

소년이 되어, 문득 어른이 되어

2011년 초연된 청소년극 <소년이그랬다>가 2021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1년의 관객들은 10년 전의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10년이 지나 달라진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묻기 위해, 남인우 연출을 만났습니다.

Q. 이 연극 전반에서, 인물들이 느린 시간을 지루하게 건디는 부분과 계속 달리는 부분들의 차이가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차이가 <소년이그랬다>에서 주요하게 포착하는 청소년기의 감각이라는 인상이었어요.

A. 제 청소년기도 그랬듯, 청소년기에는 어디론가 항상 뛰고 있고 동시에 잠시라도 안 뛰면 지루해 죽을 것 같은 특유의 감각이 있죠. 청소년기를 경험했고, 청소년기에 있다면, 그걸 느끼지 않을까요. 배우들에게 자기보다 어린 나이를 연기할 때, 머릿속 청소년을 흉내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해야할 것이 있다면 청소년기의 '생체리듬'을 기억하자는 것이었어요.

Q. 연습을 보면서, '쇼생크 탈출' 장면에서 하신 코멘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나온 어른들이 보기에는 억압이 아닌 것 같은 문제들도, 청소년기를 사는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억압이라는 말씀이었어요.

A. 사실 인생은 언제나 억압 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다만 그 시간마다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것을 가장 절박하게 느낀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었고요. 내 삶에서 지금 가장 절박한 것, 예를 들어 사랑하다 헤어지면, 당시로서는 얼마나 절박해요. 억압받는 감정, 절박한 감정 자체는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상식과 민재도 문제야나 비행 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중·고등학생이에요. 상식과 민재가 느끼는 억압,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라면 느끼는 절박한 감정으로서 보편적이지요. 또 이 절박함은 나이에따라 그 문제의 내용이 달라질 뿐, 감정적으로는 모두 같다고 생각해요. 같은 독백을 이문식 배우가 하든 김우진 배우가 하든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텍스트에서 '청소년기라서 저렇게 느껴' 라는 것은 없어요. 청소년과 어른의 차이가 있다면 생체적 리듬뿐이라고

생각하고요.

Q. 이와 관련해 이 연극에서는 청소년과 형사를 한 배우가 1인 2역으로 연기합니다. 범죄를 행한 소년들로서, 동시에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 어른들로서. 배우 한 명이 두 가지 입장에 서서 연기하게 되는데요. 연출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단 청소년극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재나 주제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극적 형식도 중요하다고 봐요. 청소년들이 연극이라는 장르를 접할 때 연극적 재미와 연극적 형식의 흥미로운 점을 경험하길 바랐고요. 무엇보다도 연극이라는 장르가 가진 놀이성, '만약 -라면'이라는 연극적인 가정이 재미있어서 1인 2역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년층 배우들을 캐스팅하게 된 이유도, 연극성을 도드라지게 하는 것과 더불어 관객들이 단순히 연극 속 사건을 청소년의 문제로만 인지하지 않게 되길 바라서였어요. 어른의 입으로 동시에 청소년의 입으로 말하는 것, 그걸 한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이를 통해 청소년 관객과 어른이 된 관객들에게 동시에 질문하고자 한 거예요. 예술교육 과정에서 만난 한 고등학생이 나이 많은 배우가 두 가지 역할을 하니, 꼭 '자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정확히 그 의도만을 갖고 연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행간들은 관객분들이 읽어주시겠조.

Q. 2021 <소년이그랬다>에서 이문식, 남수현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두 배우님이 청소년 역할을 맡으시면서, 청소년극의 가능성이 또 확 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청소년극을 쓰며 (언어나 문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른과 청소년의 정서를 보편적으로 관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기에, 이번 캐스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A. 연극은 무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관객들은 '이건 어차피 가짜야' 라고 생각하고 보잖아요. <햄릿>을 영국인들이 하지 않고, 또 (희곡에서의) <햄릿>은 청소년이지만 청소년들만 연기하지는 않잖아요. (웃음) 그냥 연극이에요. 연극이 가진 기호라고 보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 즉 자신의 아이덴티티(identity)에 관해 가장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시기이고. 사실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와 딜레마가 청소년기 안에 응축돼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본인 스스로 자기를 탐구하고 자신의 어둠과 밝음을 들여다보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나 사회적 안전망을 어른들이 제공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죠. 결국 이 질문들이 인간의 모든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사회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라면, 청소년들과 그 환경에 둘러싸인 작품들은 보편적 인간성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들에게 청소년기는 굉장한 흥미로움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대해서 좋은 작업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2011년 초연 <소년이그랬다> 희곡 텍스트에서, 당시 청소년들이 쓰던 언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셨는데요.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잘 쓰지 않게 된 말들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대본을 따로 수정하시지 않고, 과거의 유행어가 반영된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하신 연출적 선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외에도 2021년 <소년이그랬다>에서 달라진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A. 일단 저는 레퍼토리를 잘 사용하는 연출 중 한 명입니다. 단발성 공연으로 그치지 않는 편이고요. 초연 당시 후주의 <더 스톤즈>라는 원작을 두고 각색을 했는데, 한현주 작가가 한국적인 상황과 배경을 만들고, 상식과 민재의 정말 아름다운 독백을 썼습니다. <소년이그랬다>는 <더 스톤즈>와 다른 작품이고 한현주 작가만의 새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과 민재가 어떻게 관객의 마음 속에 딜레마를 심을 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희곡입니다. 그들을 판단 없이 따라가되, 악의 없는 그들의 행동이 장난이 되고 범죄가 되는 그 순간. 관객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알 수 있는 그런 정서들이 막 튀어 나오게 되죠. 그들을 따라가던 관객도, '내가 과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판단을 해야해?'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2011년 초연 당시에는 한국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촉법소년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했었어요. 2021년에 왔을 때 그동안 더 심각한 청소년 범죄들이 생겨났고, 이 사건 자체는 이슈가 아닐 수 있어요. 이 사건

자체는 이슈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런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회나 환경들은 변한 게 없고, 똑같은 딜레마에 봉착한다는 게 중요했죠. 10년 전의 이 일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면, 한국사회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해야 겠다. 그래서 대사도 바꿀 필요가 없다. 2011년에는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 관객이 지금 바로 여기의 목격자라면, 2021년의 관객들은 10년 전 그 사건의 파일을 꺼내보는 역할로서 계산 거죠. 15세기의 <햄릿>을 지금도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연극이 사건 자체를 넘어, 삶 자체에 대한 질문임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무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초연 당시 여신동 디자이너가 '안전함', '위험'의 키워드를 통해서 '공사장'이라는 컨셉을 만들었어요. 2021년 무대는 좀 더 컴팩트하게, 좀더 파일속의 사건처럼 만들게 됐고요, 초연때와 지금은 관객과 공연의 거리감, 공간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음악과 관련해서는 초연과 마찬가지로, 일렉 기타 사운드가 만들어내는 질주의 느낌과 아련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좋아서 무대 위에 밴드가 올라오게 되었어요. 초연의 음악을 기반으로 이번에 새롭게 꾸려진 음악팀들이 재 창작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윤정 안무가의 표현주의적 안무도 더 과감해졌구요. 의상도 빛바랜 사진속의 인물을 보는 느낌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상은 초연보다 더 절제하여 사용하였고요. 조명도 극장 구조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초연과는 다른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연극에서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의미가 발생해서, 관객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소비하는 쇼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과정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2021년의 <소년이그랬다>에서 10년 전 사건의 파일을 다시 열게 된 관객들은, 어른이자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들, 나아지려 노력한 밤들과,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판단들에 대해서. 또 자신만의 감옥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던 순간마다 터질 듯 뿔뿔히 찢어짐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다시 소년이 되어, 문득 어른이 되어 극장을 나설 것입니다.

장영 1인 극단 눈과빛과영. 2018년 국립극단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희곡공모에서 'G의 영역'이 당선되어 작가로 데뷔했다.

〈소년이그랬다〉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문식: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겁이 났다. 내 마음에는 항상 소년이 있지만, 열다섯 역을 하는 건 다른 문제이니까.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내 아이들이 비슷한 또래라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다. 내가 아무리 진보적으로 사고한다 해도 이미 기득권 세력이니 끈대가 되어 있을 거다.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다. 이 작품을 하며 아이를 어른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억압의 반발심으로 튕겨져 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어떤 지점에서는 나도 이려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되고.

윤동원: 개인적으로는 주제가 명확하고 주장의 목소리가 확실할수록 불편해하는 편이다. 강요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서. 질문하고 고민하게 하는 작품을 좋아하는 편인데, 〈소년이그랬다〉가 그랬다.

김우진: 작가님이 이 작품을 두고 역할극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 배우가 소년과 어른을 수시로 오가며 연기하는데, 그런 호흡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은 떨어져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얼마 전 오픈 리허설에 청소년 친구들이 왔었다. 어렸을 때의 나는 이렇게 공연을 집중해서 본 적이 있나 싶더라. '아이들은 아이들'이라는 약간의 편견이 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들도 한 명의 독립된 관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소년이그랬다〉는 청소년을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남수현: 템포가 빠른 작품이라 굉장히 다이내믹하겠구나 싶었다. 나도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끈대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아이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직접 연기하고, 이들이 사회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통해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했다. 그 질문들이 나를 계속 긴장하게도 만든다.

어린 시절에는 상식과 민재 중 어떤 쪽에 가까웠나?

윤동원: 민재 쪽에 가까웠다. 민재는 좀 약삭빠른 캐릭터다. 주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상대에게 떠넘기고, 지켜보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도망을 간다. 그러다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형들이랑 많이 놀았는데, 민재가 상식을 대하는 것과 비슷했다. 유치원 때는 어떤 형이 내가 너무 미워서 미끄럼틀에서 민 적도 있으니까. 상식을 연기하면서 예전의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싶다. (웃음)

이문식: 두 인물이 다 있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민재 쪽이었다. 아버님이 교직에 계셨고 성적도 상위권이라서 많은 것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러다 큰 도시로 나와서는 상식처럼 되었다. 공부도 많이 못 따라갔고,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 배회했다. 자존감이 팍팍 떨어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육사에 가는 것만이 복수라고 생각했던 때였다.

김우진: 환경은 민재였는데, 성격은 상식에 가까웠다. 공부만 하는 중학생 시절이 너무 답답하고 싫어서, 2학년 때 부모님께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겠다고 선언했다. 1년의 시간을 보낸 뒤 연기를 하겠다고 했다. 아빠만 허락했던 기억이 있다.

남수현: 상식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친구들 만나서 물어보면 반대로 기억하고 있더라.

둘은 크고 작은 일탈을 함께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민재에게 상식은, 상식에게 민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윤동원: 민재가 주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식과 함께 있어서가 아닐까. '다른 아이들과 있을 때 민재가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았다. 오히려 상식에 가까운 모습일 수도 있다. 상식 입장에서는 민재가 어려서 더 편한 것 같기도 하다.

이문식: 민재와 상식이 학원 땡땡이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상식은 학원비가 없어서 못가는 것 같다. 같이 놀아주는 친구도 별로 없는 상식에게 민재는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부러움도 있었을 것 같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한 상식의 엄마에 비해 민재에게는 불평하더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점에서도.

김우진: 민재에게도 상식은 언제든지 문 두드리면 나와서 반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다. 약간의 우월감도 있었을 것 같고. 민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식이 다 받아주기 때문에, 스스로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었을 거다.

남수현: 청소년기에는 세상을 약간 어드벤처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 세계를 같이 만들어주는 이들과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만나 노는 친구가 10명이 있다고 치자. 그중 빛나는 친구가 상식이 아니었을까 싶다. 연습을 하면서 더 느끼는 부분인데, 상식이 쓰는 단어나 행동들이 문학적이고 깊이가 있다. 그래서 상식이 민재에게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기억에 남는 그 시절의 친구가 있나?

남수현: 노래를 참 잘하고 잘 웃어주고 맨날 집에서

라면을 끓여주던 친구가 있었다. 내가 압구정동으로 전학을 가면서 멀어졌는데, 그 친구가 집에 편지를 써놓고 갔더라. 서운하지만 이해한다고. 나이 먹고 그 편지를 다시 보니 미안한 마음이 크고 보고 싶기도 했다. 압구정 물 먹어서 그랬던 거 사과도 하고. (웃음)

김우진: 민재와 상식처럼, 나도 어릴 때 돌을 던져 차를 맞춘 적이 있다. 친구 집 앞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었다. 반대편까지 멀리 돌 던지기 게임을 하다가 한 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맞췄다. 소름이 짝 돋더라. 조금 더 일찍 던지거나 더 높이 던졌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거다. 그 이후로 그런 위험한 장난은 절대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와의 시간들은 종종 기억난다.

이문식: 함께 어울린 친구들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만나면 다들 어른이 되어있고 서로 걸도는 이야기를 하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 기분이 좀 허해진다. 나름대로 윤색해서 좋은 기억만 남기게 된다.

이 작품의 특별한 점 중 하나가 소년과 어른을 수시로 오가는 1인 2역이라는 설정이다.

이문식: 각각의 배우가 상식과 정도, 민재와 광해를 연기한다는 걸 처음에는 몰랐다. 정도는 마음에 드는데, 웬지 상처받은 것 같은 상식은 별로였다. 정도와 민재를 묶으면 더 좋겠다고도 생각했으니까.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민재의 모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상식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했던 나를 다 드러내는 것 같아 편치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민재와 상식은 자칫 잘못하면 흉내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본질적인 상태와 감정을 담아내고 에너지틱한 지점을 찾으려 했다.

김우진: 선배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 가슴 근육만으로도 서있는 에너지만으로도 소년이 됐다가 어른이 된다. 그런데 나는 광해와 민재를 순간순간 변화시키는 일이 아직은 어렵기만 하다.

윤동원: 1인 2역이라고 해도 한쪽으로 비중이 더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균등하다. 그 지점이 매력적인 작품이다. 선배님들이 소년의 에너지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우리는 반대다. 특히 무시하는 걸 싫어해서 피하려는 편인데, 정도에게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인간 윤동원으로서 불편함이 있는 상태로 정도를 그려내는 게 쉽지 않더라.

<소년이그랬다>는 아이들의 일탈이 범죄가 되며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고, 정도와 광해는 처벌과 기회라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남수현: 희곡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이 ‘광해랑 나랑 많이

닮았는데?’였다. 광해의 생각에 완전히 일치한다. 어릴 때 실수를 정말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크게 탈선하지 않았던 건, 그런 나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며 울타리 역할을 해준 분들이 많아서였다. 미생이 완성이 되어 가는 아이들의 삶에서 어른과 사회가 단절이 아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우진: 인간 김우진으로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쪽이다. 그런데 광해를 연기하며 조금씩 먹먹해진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아직 인격이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이들을 성인과 똑같은 범죄자의 타이틀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게 된다. 관객들도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다. 중요한 것은 광해와 정도의 대립, 민재와 상식의 모습을 통해 어른의 잣대가 아닌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이문식: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대본상으로는 광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형사라서. 사실 이 문제는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대사에도 나오지만, 내가 가해자의 아버지일 수도, 피해자가 내 아버지일 수도 있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 답은 없고 그게 우리 작품의 가장 큰 메리트다. 다만, 나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 80%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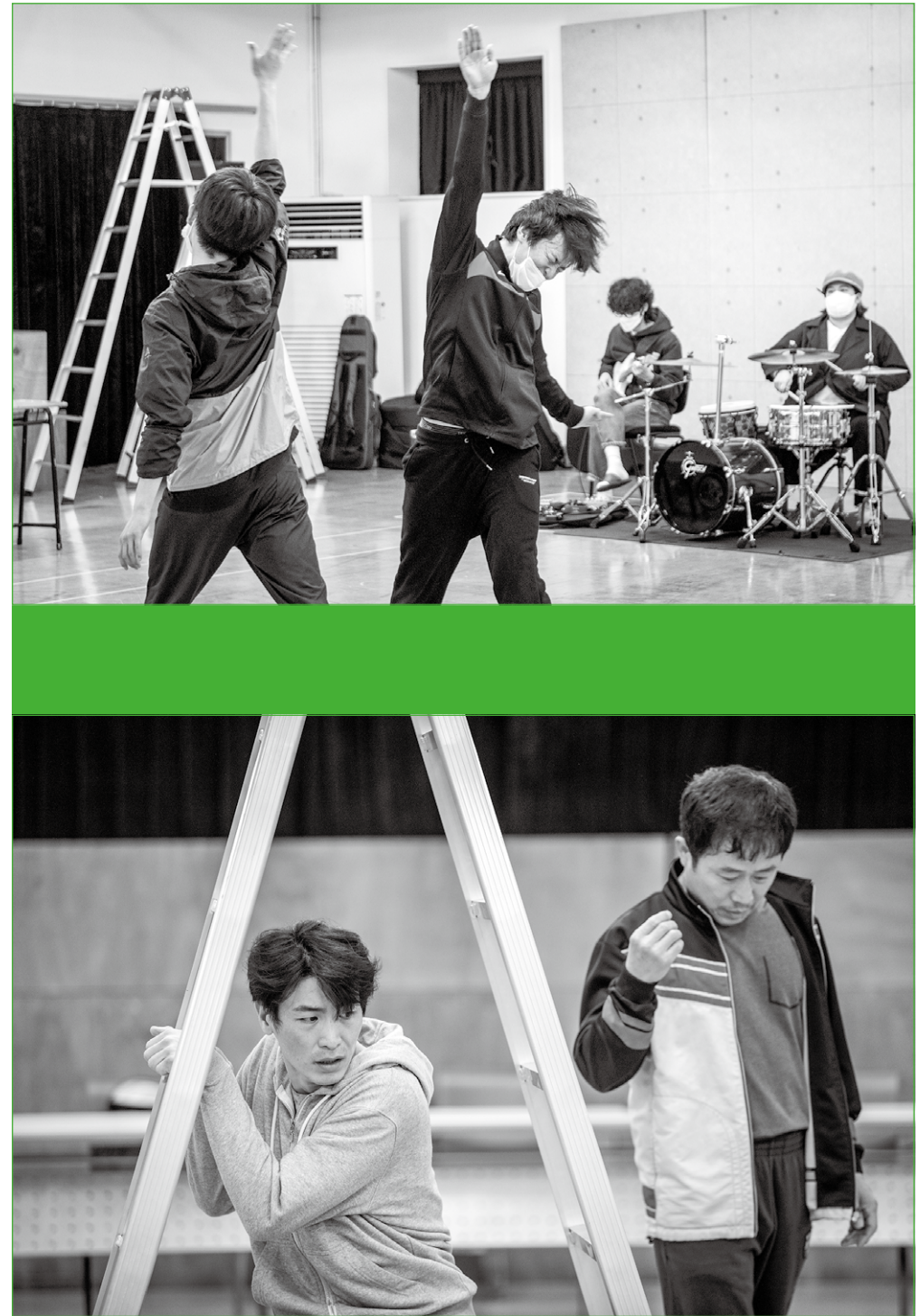
윤동원: 대부분의 일에는 정도처럼 생각해 버릴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막상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주로 광해처럼 행동했다. 종종 정도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리더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었다. 얘기 다 끝났는데도 또 이야기해서 “그래서 어찌자고”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웃음) 광해도 답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끈질기게 묻고 늘어지는 광해가 이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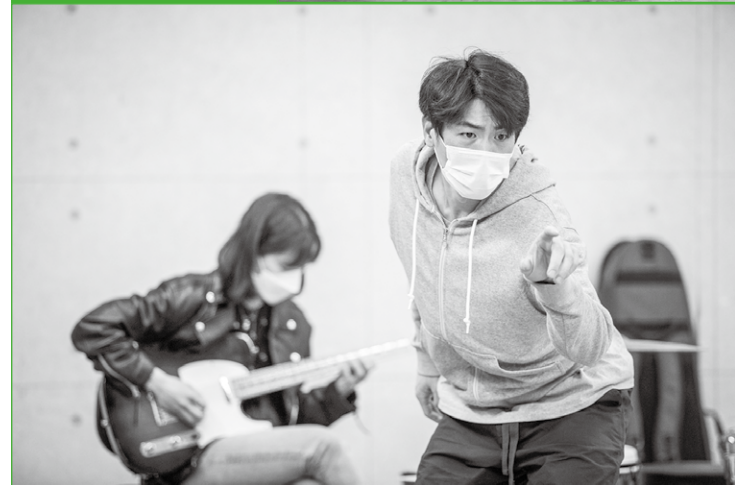
관객에게 <소년이그랬다>가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

김우진: 연극을 보고 어떤 답을 내리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을까.

이문식: 살면서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는데, 돌아보면 나쁜 일이었다 해도 다 의미가 있더라. 나는 정도 쪽에서 세상을 뛰어가고 있다. <소년이그랬다>를 하면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80% 정도 쪽이라고 했지만, 나 역시도 광해 같은 시각을 갖게 된다면 좋겠다. 연극이 계기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느끼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수현: 어린 시절의 단짝 친구를 떠올려보는 것도 좋겠다. <소년이그랬다>가 처음으로 공연된 게 2011년이었다. 그때와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졌나 생각해보고, 나 스스로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2011 <소년이그랬다> 예술교육—불안과 확인, 묻다

2011년 국립극단의 첫 번째 청소년극인 <소년이그랬다>에서 예술교육팀 활동은 약간의 불안감과 확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창작팀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이 질감과 이미지가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음악과 색깔이 우리가 그리는 감정을 청소년에게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창작과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자신도 있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은 뭘 듣고, 뭘 그리고, 뭘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 2011년 <소년이그랬다> 프로그램북 제작일지 중에서, 남인우 연출

2011년 9월, 예술교육팀의 첫 번째 활동은 이른바 감성적 심층 설문으로, 서울 시내 중,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청소년 168명에게 만화와 낙서, 이미지와 음악을 가지고 질문을 건넨 것이었다. 그런데 그 질문이란 것이, 작품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다.

“음악을 잘 들으면서 답해 주세요. (사진의) 벽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곧 벽에 낙서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림 속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을 벽에 낙서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질문의 방식

창작자의 선택을 확인하고 싶어서 던졌던 질문의 방식이, ‘이 선택이 맞나요? 틀리나요?’나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의 번호를 선택하세요.’가 아니라, ‘이 음악을 듣고 상상해 봅시다. 평소 여러분을 괴롭히던 못된 친구에게 복수를 하고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복수를 한 후 달리고 있을 때의 기분을 세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나 카툰의 빈칸을 채워 그려달라고 했던 것은 이후 10년 동안 국립극단 청소년극의 예술교육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렵듯이 예고해 준 셈이었다.

질문) 어느 날 저녁, 두 청소년이 이곳(육교 사진)에 올라가서 20분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 그들은 왜 20분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을지

상상해서 적어주세요.

답) “심심한 두 청소년이 육교를 보고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다가 재미있는 놀이 없을까 생각을 했다. 그것은 바로 눈싸움이었다.”

질문) (아무도 없는 저녁 무렵 놀이터의 빈 그네와 놀이기구에 대한 드로잉을 제시하고) 어느 날 저녁, 두 명의 중학생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상상해서 적어 주세요.

답) “☹️: 야 ☹️: 왜? ☹️: 그냥... ☹️: 지랄 ☹️: 가자.”

2011년 <소년이그랬다>의 공연팀은 이렇게 만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서 ‘발견’을 시도했다. 청소년의 생활 모습이나 유행어 몇 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의 리듬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관계들과 감정들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음악팀과 무대, 의상 등 디자인팀은 더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꺼이 음악 자료와 이미지 자료들을 건네 주었고 청소년들의 답을 유심히 들여다 보았다. 설문의 첫 동기는 불안과 확인이었지만, ‘맞는지 틀리는지’ 묻지 않고, ‘우리, 같은 음악과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 걸면서 자신도 모르게 청소년과 협업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청소년 서포터즈 <우리가그랬다>를 모집하여 공연을 한 달 앞두고는 연습한 장면을 보여주고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의 존재와 감각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기도 했다.

그 후로 10년을 지나면서

청소년 서포터즈는 공연별 청소년 참가단(<빨간버스>(2012) 청소년 참가단 ‘빨간 버스 승객단’)으로, 다시 국립극단 청소년극의 파트너로서 연간 활동하는 ‘청소년17인’(<2015년~현재>)으로 바뀌어 왔다. PPT 파일을 들고 교실로 나섰던 감성적 심층 설문은 청소년 워크숍이나 협력학교를 통한 설문지(<영지>(2019)) 등으로 변형되기도 했고,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개개인을 찾아 나서 영상이나 인터뷰로 그들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하기도 했다(<자전거도독헬멧을 쓴 소년>(2019) 예술교육 리서치). 공연

연계 이야기판 역시 때로는 청소년의 사회 속 위치와 사회적 주제에 집중하기도 하고(<레슬링 시즌>(2012) ‘소문과 한판’, <좋아하고있어>와 <말들의 집>(2017) 이야기판 ‘여학생’, 때로는 작품과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담아내기도 하면서(<오렌지 북극곰>(2016) ‘오렌지와 북극곰과 제3지대’) 관객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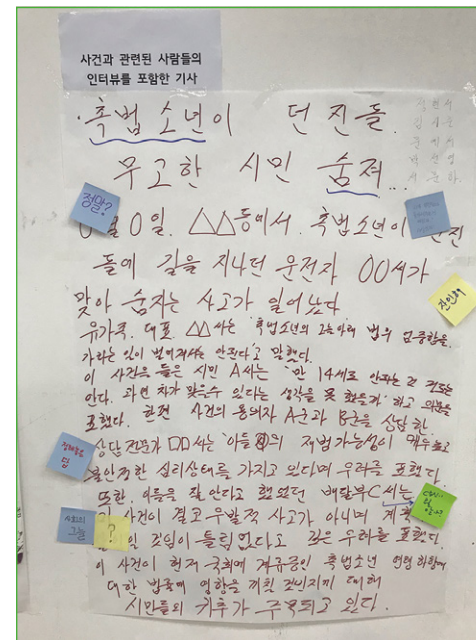
2021 <소년이그랬다> 예술교육—오픈 리허설,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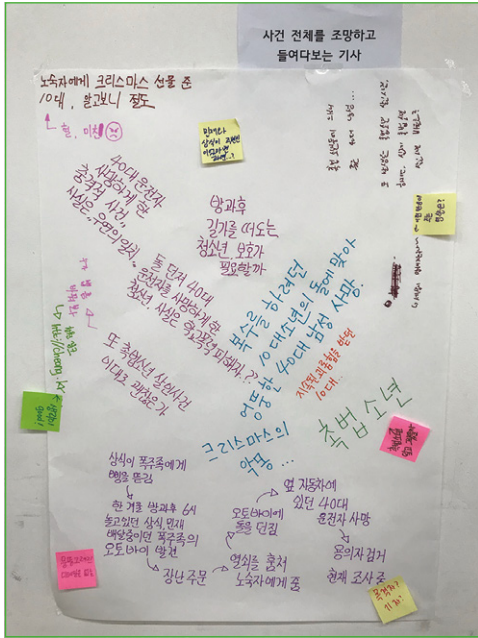
2021년 <소년이그랬다>는 ‘오픈 리허설’을 중심으로 예술교육 활동을 시작했다. 오픈 리허설은 말 그대로 연습 장면을 개방하는 것으로, 이 역시 처음에는 무대에서 청소년 관객을 만나기 전 몇몇 장면을 시연하고 창작진의 선택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것에 가까웠다. 현재는 청소년17인이나 협력학교 등의 참여자들이 연습 장면을 보고 장면이나 작품에 대한 생각을 공연팀과 이야기하거나,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서로의 언어와 감각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자리잡았다.

오픈 리허설은 어찌 보면 창작진과 참여자들이

모두 특별한 용기를 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공연 3~4주 전, 연습은 아직 한창이고, 무대도, 의상도, 조명도 없이 장면 전환마저 모두 노출된 연습실에서 창작진은 작품의 일부 장면만으로 연습실을 찾아준 참여자들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역시 시연 장면과 워크숍 활동에 모든 감각을 열고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사유하면서 창작진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아직 부족하지만 연습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 창작자의 공간의 문턱을 넘어 최선을 다해 열린 마음으로 초대에 응하는 것이 오픈 리허설의 모습이다.

공연을 3주 앞두고 진행된 2021 <소년이그랬다> 오픈 리허설은 어느 때보다 더 큰 용기와 열린 마음을 필요로 했다. 공연팀은 몇몇 장면을 건너뛰고 조각난 장면을 시연하자는 예술교육팀의 제안에 응해 주었고, 참여자들은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장면들을 보면서 사건을 이해하고 인물 사이의 관계와 정서를 알아채야 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식과 민재의 꿈을 풀라주 하며 들여다보고, 이들의 사건에 대해 세상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여러 관점의 기사를 작성해 보았다.





“사다리의 삼각형 모양, 그 안에 갇혀서 질문을 받는 상식이와 민재가 불안하게 느껴져요.”

“지퍼를 올리고 내리는 건 단순히 인물을 구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건 기사를 일부러 자극적으로 써 봤어요. 전문가 인터뷰를 엉뚱하게 인용하고 아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속단하고 공격하는 뉴스들이 실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그 반응을 같이 경험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참여자들은 연습실을 찾아온 자신들을 위해 연습실에 간이 객석을 마련하고 라이브 연주를 미리 녹음해서 연습실을 전력 질주하며 장면을 준비해 준 공연팀과, 그리고 공연팀은 불과 20분 정도의 장면을 보고 단박에 4명의 인물, 사건, 그리고 무대 위 상징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침없이 최대한의 이야기를 건네어 준 참여자들과 이렇게 만났다.

오픈 리허설이란 ‘만남’

오픈 리허설에서 공연팀은 표현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상대로서 청소년들을 처음으로 직면하곤 한다. 참여자들은 연습실을 열고 자신을 초대해 준 공연팀과 공연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자신과 공연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여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오픈 리허설의 핵심으로, 사실 장면 시연이나 피드백, 작품에 대한 워크숍 그 어느 것도 고정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없다.

10년간 무수하게 질문받고 질문했던 ‘청소년극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청소년의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연극,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연극 등 여러 가지로 답하기가 시도되었다. 오픈 리허설을 놓고 보자면, 청소년극은 청소년의 존재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연극이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창작 주체로서의 청소년, 청소년극 관객

그렇다면, 설문이나 워크숍, 오픈 리허설과 같이 국립극단 청소년극에서 공연 연계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들은 설문과 질문에 답해 주는 리서치의 대상, 또는 조연자, 또는 공연팀의 첫 번째 관객, 아니면 어색한 방문객, 혹은 공연 창작 과정의 자문단, 그리고 그 외의 또 다른 여러 모순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10년간 공연 연계 예술교육에서 이들은 때로는 피드백과 관찰의 영역에서 대상화되기도 했고 때로는 공연에 대한 주인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히 모집된 일부 청소년 집단이 아니라, 청소년극 창작의 파트너가 되는 창작 주체로서의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극 관객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보인다.

2011년 첫 청소년극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미 청소년극 창작 과정에서 ‘문화주체로서의 청소년’, ‘청소년을 작품으로 대상화하거나, 관객의 위치로 고정하거나 제한하는 데서 나아가, 청소년을 작품의 기획 주체로 상정하고, 그들이 창작 주체로 갖는 가능성’을 명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11 프로그램북 중에서, 최기숙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 교수).

10년 전의 감성적 심층 설문은 단순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생각을 취척하는 도구처럼 보였지만, 그 동안의 예술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창작진에게 말을 거는 순간으로 종종 회상되었다. 오픈 리허설은 처음에는 단순히 공연팀이 청소년 관객을 연습실에서 미리 만나고 경험해본다는 의미였지만, 어느새 청소년극의 창작 과정에서 관객이 공연의 감상자에 머물지 않고 창작에 기여하는 파트너이자 창작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한 장면이 되었다. 국립극단 청소년극에서 예술교육의 영역이, 관객이 작품에 더 잘 다가가고 작품이 청소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서, 이제는 청소년극에서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 시스템과 관점을 탐색하는 영역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고 과연, 청소년들 관객을 창작의 주체로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존재한다. 그들의 말과 생각이 형식을 갖춘 완결된 예술 작품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과거 언젠가 배우들을 앞에 두고 ‘연기할 때 어색하지 않나요? 얼마나 몰입하나요?’, ‘그런

말들은 요즘 애들은 안 써요. 어색해요.’를 조심스레 말하던 이들이, 이제는 연습실 한가운데에서 짧은 장면만 보고도 작품의 상징을 읽어내고 그것을 진지한 언어로써 최선을 다해 공연팀에 말 건넨다. 이 정도로는 창작의 주체로 협업하기에 아직도 부족하다 해야 할까?

늘 청소년들은 청소년극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 그들은 자라서 떠날 테니 새로운 청소년 관객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청소년들과 청소년극 관객은 10년 동안 단단해진 청소년극 위에 발 딛고 나타나서 더 적극적으로 주저 없이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10년의 차이를 두고 <소년이그랬다>를 통해 알아차릴 수 있었다.

<소년이그랬다> 오픈리허설에는,
2021 국립극단 청소년17인(김민진, 김송새봄, 김시준, 김희나, 노연우, 문에서, 박규리, 박도연, 박선영, 서다운, 송연정, 양준이, 유한별, 이수영, 임다운, 정현서, 최지혜),
2021 청소년극 협력학교 교사(김유미, 김은빈, 김지훈, 서문하, 오동진, 임희영, 채홍석, 최현준), 문산수익고 연극반 학생들과 <소년이그랬다> 공연팀이 <소년이그랬다> 예술교육팀 손서희, 박진선, 윤성우와 함께 했습니다.

<소년이그랬다> 관객 워크숍: 관객이 말하다
“청소년극 관객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극 관객의 또 다른 소통과 새로운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객 워크숍을 실험한다. 공연과 관객이 나눈 이야기를, 관객들 사이의 이야기로 새롭게 엮고 청소년극 관객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 공연을 보고 난 후 청소년극 관객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이다. 청소년극의 주체로서 청소년극 관객은 어떤 모습일지 새롭게 비추어보고자 한다.

*상세내용 31페이지 참조

2011

출연 상식, 정도. 김문성
민재, 광해. 김정훈
연주 기타. 남관우
타악. 김홍식



사진. 이도희



2012

출연 상식, 정도. 임종완
민재, 광해. 김정훈
연주 기타. 남관우
타악. 김홍식



사진. 김호근



사진. 김상협



사진. 김상협

2013

출연 상식, 정도. 이철희
민재, 광해. 김정훈
연주 기타. 남관우
타악. 김홍식



사진. 임영환



사진. 임영환

원작. 톰 라이코스&스테포 난쑤
예술교육감독. 최영애
극본. 한현주
연출. 남인우
협력연출. 유홍영
드라마트루그. 손서희
조연출. 이지혜
음악팀. 남관우, 김홍식, 이향하, 신승태
예술교육. 최기숙, 손준형, 김창영,
오연주
기술감독. 어경준
무대감독. 김지명
무대조감독. 정광진

무대디자인. 여신동
조명디자인. 이유진
의상디자인. 정민선
사운드디자인. 장태순
움직임지도. 이윤정
영상감독. 김영민
영상기술감독. 김중현
영상디자인. 박재은, 김지혜
조명팀. 김홍기, 이영욱
조명오퍼레이터. 구자혜
음향오퍼레이터. 정윤석
음향크루. 김연희
무대제작. 에스테이지(s_TAGe)

그래픽디자인. 윤용석
사진. 이도희
프로그램북 그림. 송선찬
인쇄. 미림아트
옥외광고. (주)미라클
하우스매니저. 최홍일
공연진행. 문지현, 이난숙
프로그램북 편집. 김해주, 최영동
마케팅. 윤다애
프로듀서. 김미선
제작.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최영애)
예술감독. 손진책

2011

· 백성희장민호극장
2011.11.24.-12.04.
· 광주 동성여자중학교
2011.12.19.-20.



소년과 어른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소년이그랬다'
— 2011.10 문화저널 21

2012

· 부산 LIG아트홀
2012.04.05.-08.
· 경기도문화의전당
2012.06.02.-03.
· 남해문화체육센터
2012.06.07.
· 속초학생체육관
2012.06.11.
·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
2012.06.15.
· 부안예술회관
2012.06.22.



2011년 백성희장민호극장 공연



2011년 광주 동성여자중학교 공연

2013

· 백성희장민호극장
2013.05.17.-25.



2011년 광주 동성여자중학교 공연



네가 던진 돌에 사람이 죽었다면...
10대에게 아프게 묻다
— 2011.11 동아일보



10대 언어로 그들의 이야기를..
청소년극 반가운 귀환
— 2011.11 한국일보

국본| **한현주 HAN HYUN CHU**

*프로필 9페이지

연출| 남인우 NAM IN WOO

연극 <불꽃놀이> <래리미 프로젝트>

<웃는 동안> <연출의 판 가제 317>

<보이 갯츠 걸> <겨울이야기> <구름>

<소년이그랬다> <가문장아기> <실종>

외

판소리극 <절창> <사천가> <역척가>

창극 <내이름은 오동구>

<만복사저포기> <브루스니까 숲의

노래> 외

수상 2017 한국연극 베스트7

<봉장취> | 2016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 연출상, 최고인기상 <봉장취>

| 2012 서울어린이연극상 연출상,

음악상

무대| 여신동 YEO SHIN DONG

시노그래피 연극 <양손프로젝트

데미안> <오일> <헛릿> <작가>

<작가, 작품이되다-장주네>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 <래리미 프로젝트>

<이방인의 노래> <노인과 바다>

<소녀가> <가까스로 우리> 외 | 전시

<클럽 그로칼랭> | 콘서트 <ROUND

AND AROUND 동글고 동글게

장민승x정재일>

연출 연극 <pan123me1>

<오렌지 북극곰> <1,908초>

<비행소년KW4839> <사보이아수나>

| 전시 <국립극단 70주년 기념전시-

연극의 얼굴> | 콘서트 <Hyukoh

concert: how to find true love and

happiness> <새소년/2020NEON

concert> <jung jaeil in concert> 외

조명| 이유진 LEE YU JIN

연극 <구름> <해무> <보이 갯츠 걸>

<한국사람들> <빨> <날 보러 와요>

<우투리> <클로저> 외

판소리극 <사천가> <역척가> <동초제

심청가> <안데르센 이야기> <닭들의 꿈

날다> <닥터2478> <19호실로 가다>

외

창극 <술의 노래> <내이름은 오동구>

<만복사 사랑가> <옥중비가> 외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아빠

사랑해요> <알사탕> 외

오페라 <마술피리> 외

무용 <1과4 다시> <75분의1초> 외

의상, 소품| 정민선 JUNG MIN SUN

연극 미술 <불꽃놀이> <겨울이야기>

| 의상 <구름> <네더> <단편소설집>

<칼집 속에 아버지> 외

오페라 미술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 | 의상 <투란도트> <호프만

이야기> <레드슈즈> 외

판소리극 미술 <절창>

무용 미술 <루돌프> <봄의 제전>

<진경화> | 의상 <스윙> <혼합> <비가>

<토너먼트> 외

음향| 안세운 AN SE WOON

연극 <동양극장2020>

기타 <언성> <평창동계올림픽—

한중일 문화동계올림픽공연> <MMC

페스티벌> <D.M.O.T 대만 투어공연>

외

움직임| 이윤정 LEE YUN JUNG

무용 <설근체조> <1과 4, 다시> <점과

척추 사이:시선+> <On This In—

Between Moment> <75분의 1초>

<그들에서 추다> 외

연극 <불꽃놀이> <사물함> <오렌지

북극곰> <보이 갯츠 걸> <더 파워>

<체액> <구름> <소년이그랬다> 외

판소리극 <절창>

영상| 윤민철 YOON KENNIKIE

뮤지컬 <위키드> <붉은정원>

연극 <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

<알리바이 연대기> <갈매기> <1945>

<빛의 제국> <빠의 기행> <글로리아>

<히스토리보이즈> <당신의손>

<차이메리카> <그을린 사랑>

<나는야연기왕> <비행소년 KW4839>

창극 <산불> <아빠사우르스>

오페라 <토스카> <라트라비아타>

<안나볼레나> 외

조연출| 송근욱 SONG GEUN WOOK

연극 <The Bus> <청춘나비

즉흥극> <마지막 동화> <세레모니>

<부산역공화국> <호외> <일 없습니다>

연출

교육감독| 손서희 SOHN SEO HEE

드라마투르기 <2011 소년이그랬다>

<좋아하고있어>

예술교육리서치 <영지>

<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

교육감독 <발가락 육상천재>

예술교육| 박진선 PARK JIN SUN

연극 <발가락 육상천재> <고요의

울림> <사계의 색깔을 찾아서>

<오늘이> <말괄량이 삐삐 오늘도 맑음>

예술교육|

윤성우 YOUN SUNG WOO

조연출 <발가락 육상천재>

배우 <엘프들의 오후> <아이스울프>

<말괄량이 삐삐 오늘도 맑음>

작곡 <헬춘초> <무인도 탈출기>

<디지털 싱글앨범: 너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관객워크숍| 마노 MANYO

즉흥연극창작집단 목요일오후한시

멤버, 독립공연예술가, <별레가 된

소년> <소녀들.열일곱,열여덟,열아홉>

작, 연출, 배우

출연

김우진 윤동원 / 남수현 이문식

연주

기타. 김정민 한지수

타악. 김솔지

스테프

원작. 톰 라이코스 & 스테포 난수 (더 스톤즈 The Stones)

국본. 한현주

연출. 남인우

무대. 여신동

조명. 이유진

의상·소품. 정민선

음악창작. 김정민

(초연 음악창작. 남관우 김홍식 / 초연 음악에 기반, 새롭게 창작)

음향. 안세운

움직임. 이윤정

영상. 윤민철

조연출. 송근욱

교육감독. 손서희

예술교육 기획. 손준형

예술교육. 박진선 윤성우 최은수

관객워크숍. 마노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김정빈

제작감독. 이승수

조명감독. 김용주

음향감독.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오퍼레이터. 김채원

음향오퍼레이터. 박정현

무대디자이너 어시스턴트. 정용현

무대디자이너 조감독. 이상민

무대진행. 김영주 윤한울

무대제작. APIC(애픽) (대표 : 전종혁)

무대전식. 레드 (대표 : 고성원)

조명디자이너 어시스턴트. 문동민

조명팀. 김봉균 김성민 김주리 박현수 이민주 조은실

조명장비협력. (주)토탈코리아 (대표 : 신재)

음향팀. 박상준

영상팀. 김재성 김석기

영상장비협력. 인터렉션랩 (대표 : 윤민철)

의상·소품디자이너 어시스턴트. 황수폴

의상제작. 씨앤디(CND)

(대표 : 황수폴)

의상진행. 김민주

메인 디자인. 페이퍼프레스

(대표: 박신우)

응용 디자인. WT (대표: 이지선)

홍보/공연/연습사진. 그린비 (장성웅 정원균)

공연영상. 연두픽처스 (감독: 조윤수)

홍보영상. 602STUDIO (대표: 김영준)

옥외광고. 영기획 (대표: 서성원)

홍보물 인쇄. 인타임 (대표: 김종민)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김유연

마케팅. 박보영

온라인 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후원. 이송이

청년인턴. 노소연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

티켓. 김효진

매표안내원. 김경은 김인혜 채수환

하우스 매니저. 이기쁨

안내원. 정진영 이민경 임지은 송 술 황지수 김성혜 배연준

김지수 박주는 김나연 최희라 김지윤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프로그램북 제작

기획/편집. 김미선 전소는 박성연

디자인. 데저트팜 (대표 : 양으뜸)

줄거리 번역. 알리사 김

인쇄. 미림아트

제작총괄. 김성제

프로듀서. 김미선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박성연

제작진행. 전소은

제작.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대표이사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인사·복무·복리후생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이지연 아카이브 자료관리·출판
박설아 연수단원
홍혜림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김철순 정채영 지영림 이정민 박소영
김훈일 윤정민 프로듀서
박소영 연수단원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이정현 김유연 최윤영 홍보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승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노소연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홍영진 박지수 경은주 이승수 제작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기완 정하윤 허정윤 연수단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최은수 연구개발
박성연 공연제작·사업기획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받고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할인(전등금, 4매 한)
- 국립극단 기념품 제공
-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매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금, 본인 1매 한)

좋은친구 연회비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 명동예술극장 기준)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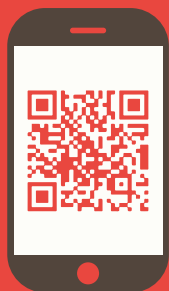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10+

2021년 5월, 국립극단 청소년극의 시작 〈소년이그랬다〉 공연과 함께
청소년극의 감각으로 연극의 현재와 미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객 워크숍 : 관객이 말하다

사유하는 행위자, 놀이하는 감상자,
시적 관객으로 초대합니다.
관객이 쓰고, 움직이고, 낭독하면서
〈소년이그랬다〉와 〈관객〉을
새롭게 비추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극 관객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일시	5월 27일, 29일(공연 종료 후 1시간)
장소	소극장 판
길안내	마노(독립공연예술가)
참가자	5월 27일, 29일 〈소년이그랬다〉 관객 중에서 사전 참가 신청자(회당 20명 내외) *신청 대상자는 추후 문자로 예매 안내 예정
시간	5월27일(목) 21:00~22:00 5월29일(토) 16:30~17:30

국립극단 청소년극 10주년 이야기판

국립극단 청소년극 10년의 향해를 돌아보고,
청소년극의 쟁점과 공통 감각을 발견하려 합니다.

향해 일지, 나침반, 좌표

일시	6월5일(토) 17:00~19:00 (〈소년이그랬다〉 공연 종료 후)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길안내	박이현(문화연대 활동가), 손서희(〈소년이그랬다〉 교육감독)
이야기꾼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한 때 청소년이었던 청년과 평론가 등
참가자	어린이청소년극 생산자, 관객 등 청소년극에 질문이 있는 참가 신청자 40명 내외

10주년 전시 : Y가 X에게

관객 체험형 전시 〈Y가 X에게〉를 통해
청소년극의 질문과 목소리,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Y는 질문에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 누구.
청소년, 청소년극을 만드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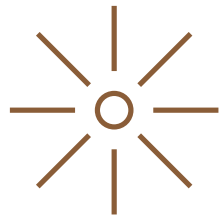
천개의 얼굴, 다른 언어, 기억의 공유, 시선의 교차

기간	6월5일(토)~13일(일) * 6월5일(토) 3회차, 6월8일(화) 전시 운영 없음
관람 회차	1일 3회차, 총 23회차 (회당 사전 예약자 8명 한정 / 최대 30분 관람)
전시 공간	소극장 판
시간	평일 18:00~21:30 / 주말 13:30~17:00 (평일 회차) 1회차 → 18:00~18:30 2회차 → 18:40~19:10 3회차 → 21:00~21:30 (주말 회차) 1회차 → 13:30~14:00 2회차 → 14:10~14:40 3회차 → 16:30~17:00

예약 방법 국립극단 홈페이지(www.ntck.or.kr)
공지사항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10주년 프로그램
안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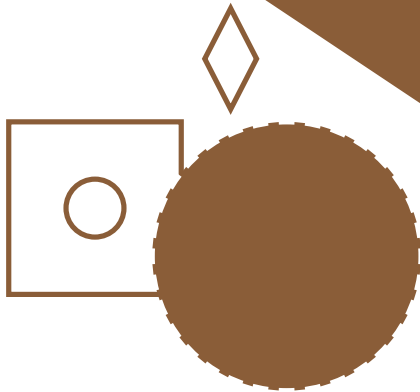
문의 02)3279-2286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2011년 5월 2일 문을 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소장 김성제)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공연제작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제작 및 지역 공연, 작품 개발 및 연구,
예술교육이 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연보(2021-2011)

청소년극 공연제작

인생의 근원, 어린이청소년의 새로운 좌표 찾기
예술의 주체, 삶의 주인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서사, 어린이청소년극
→ 청소년극 제작 전반에서 관객과 관계 맺기와 쌓기
→ 청소년 나아가 인간, 사회, 현대연극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다

2021년

- 〈소년이그랬다〉 (05.21-06.13)
백성희장민호극장 (07.30-31) 대구
수성아트피아

2020년

- 〈영지〉 (05.22 -06.14)
백성희장민호극장
- 〈발가락 육상천재〉 (10.30-11.22)
백성희장민호극장

2019년

- 〈영지〉 (05.23 -06.15) 소극장 판
- 〈죽고 싶지 않아〉 (08.22 -09.08)
백성희장민호극장 (07.04)
울주문화예술회관 (07.10/07.12)
충남학생교육문화원 (09.20 -
09.21) 성남아트센터
-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 (11.21 -
12.15) 소극장 판

2018년

- 〈사물함〉 (04.20-05.06) 소극장 판
- 〈죽고 싶지 않아〉 (06.15-07.01)
백성희장민호극장 (07.12-07.13)
금산다락원 생명지집 (07.28)
가평문화예술회관 (09.07-09.08)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오렌지 북극곰〉
한국영국공동프로덕션 (10.11 -
10.21) 백성희장민호극장,한국
(11.01 - 11.10) 더도어,
버밍엄레퍼토리씨어터,영국

2017년

-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05.04-
05.21) 백성희장민호극장 (06.03)
상주문화회관 (06.13) 고흥문화회관
(07.26-07.27) 서산문화회관
- 〈좋아하고있어〉 (10.13 -10.29)
소극장 판
- 〈말들의 집〉 (11.17 -12.03)
백성희장민호극장

2016년

- 국립극단 청소년극 릴-레이 III
(05.19-06.19) 〈고등어〉, 〈죽고 싶지
않아〉
- 〈오렌지 북극곰〉
한국영국청소년극프로젝트 (09.01-
09.11) 백성희장민호극장
- 〈타조 소년들〉 (11.18-12.04) 소극장
판

2015년

- 〈빨간 버스〉 지역투어 (05.01-07.11)
진주 현장아트홀, 경성대 예노
소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
-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05.09-
05.24) 소극장 판
- 〈비행소년 KW4839〉 (11.13-
12.19) 백성희장민호극장,
경북학생문화회관, 장성문화회관

2014년

- 국립극단 청소년극 릴-레이 II
(05.17-06.21) 〈햄스터 살인사건〉,
〈옆에 서다〉, 〈비행소년 KW4839〉
- 〈레슬링 시즌〉 지역공연 (05.29)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06.07)

- 세종문화예술회관
- 〈타조 소년들〉 (11.15-11.30)
소극장판

2013년

- 국립극단 청소년극 릴-레이 I
(05.17-06.09) 〈소년이그랬다〉,
〈빨간 버스〉, 〈레슬링 시즌〉
- 〈레슬링 시즌〉 지역투어 (06.21-
07.26) 영암 삼호중학교, 마산
태봉고등학교, 경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영주 제일고등학교,
안성시민회관, 온양 용화고등학교,
광주적십자 청소년수련관
- 〈노란 달 Yellow Moon〉 (11.08-
11.24) 백성희장민호극장

2012년

- 〈소년이그랬다〉
지역투어 (04.05-07.21)
LIG아트홀 부산, 경기도문화의전당,
남해문화체육센터, 속초학생체육관,
남원충향문화예술회관,
부안예술회관, 정읍사예술회관,
강진아트홀, 단양군문화예술회관,
경주예술의전당, 고양어울림누리
- 〈레슬링 시즌〉 (05.29-06.10)
백성희장민호극장
- 〈빨간 버스〉 (11.22-12.16) 소극장 판

2011년

- 〈소년이그랬다〉 (11.24-12.04)
백성희장민호극장 (12.19-12.20)
광주 동성여자중학교

창작극, 재창작과 각색, 해외 공동제작, 지역공연 등 매년 2-3편의 청소년극을 올리고 있다.
2011년 '소년이그랬다'를 시작으로 총 24편을 제작, 457회 공연, 전국 42곳 순회,
총 78,000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청소년극 연구,개발

새로운 질문, 텍스트와 형식 개발, 관객 연구

→ 청소년과 예술가의 살아있는 관계 맺기

→ 일상에서 연극으로, 연극에서 일상으로

70여명의 극작가와 예술가, 370여명의 배우,
35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총 56일간의 쇼케이스 및 한여름밤의 작은극장에
15,300명의 관객이 함께 했다.

청소년극 창작벨트

- 2019-2020년 <무중력 연애>
<맥가핀> <초록빛 목소리>
<병아리를 갈아 만든 피카츄
돈까스> <견고닥-겔> <그렇게
남아있는 앓고 가느다란>
- 2018년 <G의 영역> <여름방학>
<병목안>
- 2017년 <봉천동 카우보이> <장난감
병동> <사물함>
- 2016년 <아는 사이> <열다섯>
2015년 <아가미> <날아가 버린 새>
<고등어>
- 2014년 <토끼굴> <편의점>
<19호실>
- 2013년 <옆에 서다> <질풍노도의
역사> <북치기 박치기>
- 2012년 <무한리필사춘기배송서비스
더박스(The BBOX)> <안녕,>
<개천의 웅간지>

한여름밤의 작은극장

- 2019년 <덤블링의 고수> 등 13편
(7.19-21) 국립극단 스튜디오 하나,
둘 및 야외무대
#우리동네 작은극장 (10.12-
26) <구름공장> <무용극 보따리>
<판소리 그림자극 새판> 등
8편 / 용인 포곡중학교, 음성
소이초등학교, 양양 상평초등학교
- 2018년 #작은극장 1교시 워크숍

- (07.02-12.05) <시간 박물관>
<도깨비 마을에서 덤블링을 잘하던
똥이 이야기> <나는 뭐야?> <4개의
몸 골라쥬>
- 2017년 <자살 광대> 등 7편
(08.25-27) 국립극단 야외 등나무
극장 외
- 2016년 <결에서> 등 23편 (08.26-
28)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로비 외
- 2015년 <임신 출산 대백과> 등 21편
(08.21-23) 국립극단 스튜디오
하나 외
- 2014년 <씨앗 이야기> 등 16편
(8.22-24) 국립극단 느티나무 극장
외
- 2013년 <돈키혼자> 등 17편 (8.17-
18) 국립극단 블루블럭 극장 외

어린이청소년극 연구

- 2020년 [청소년극 비대면 공연
현장 연구]
- 2019년 [청소년 참여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위한 극장/극단의
안전 지침 및 규정에 관한 조사
연구]
- 2017-2018년 [청소년과 예술가
협력 사례 연구1,2]
- 2016년 [청소년극 관객 분석 및
관계 발전 전략 연구]
- 2015년 [학술 · 문화 · 현장에서의

- '청소년(극)' 연구와 담론의 현황
검토와 전망] | [한여름밤의
작은극장이 추구하는 연극형식적,
공동체적 의미 연구] | [기초연구-
국립극단 2015 청소년 예술교육]
- 2014년 [비행소년KW4839 공연
제작을 통한 청소년극 이야기-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 2013년 [연극 속의 청소년극,
청소년극 속의 연극]
- 2012년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설립을 위한 연구 총서
<어린이청소년에게 문화를 미래를
돌려주자>]
- 2011년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해외사례연구 | [해외사례연구1-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해외사례연구2-영국, 미국, 호주]

영유아극 개발

- 2020년 영유아극
창작연구(책임예술가 김예나,
양혜정)
- 2019년 [영유아극 창작과정 속의
실험과 도전.2018~2019년도
국립극단 영유아극 2편의 창작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 2018년 영유아극 창작연구
(책임예술가 이주아, 전유진)

참여와 협력

어린이청소년이 예술 창작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장

→ 어린이, 청소년, 지역, 세대 간 연결망 속에서 연극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

청소년예술가탐색전

- 2020년 <한밤중에 나의 머릿속을
멤도는 것들> 영상작가 함혜경, 웹
개발자 송예환과 청소년 6인
- 2018년 <위험한 놀이터> 연출가
김경희와 청소년 9명 | <듣는 시간,
들리는 공간> 사운드아티스트 목소와
청소년 9명
- 2017년 <소리의 설계도_REVERS-
PLAY> 미디어아티스트 전유진과
청소년 10인 | <나의 목소리가
연극이 될 수 있다면> 연출가 구자혜,
래퍼 솔제이와 청소년 14인
- 2016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시인 황인찬, 연출가 이영석과 청소년

- 12인 | <몸! 그 이상의 언어들>
안무가 이윤정과 청소년 12인 |
<나를 그리는 시.선.> 무대미술가/
일러스트레이터 우영주와 청소년
9인
- 2015년 <자유를 위한 몸의 낙서>
안무가 류장현과 청소년 8인 | <말을
모으고 짓고 쓰기, 그리고 무대에
올리기> 연출가 성기웅과 청소년
14인 | <웃, 오브제, 생각의 골라쥬>
이진희 무대미술가와 청소년 15인
- 2014년 한국영국청소년극프로젝트
<15세, 지영과 윌리엄> 작가 고순덕,
에반 플레이시와 한국,영국 청소년
15명

- 2013년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대미술가 여신동과 청소년 17인 |
<랩, 그리고 이야기> 래퍼 솔제이와
청소년 16인 | <춤추는 시간> 안무가
곽고은과 청소년 11인
- * 청소년 17인 : 청소년이 청소년극
제작과 관련한 주제탐구 및 리서치,
비평 등 예술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2015년부터 매년
15-1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극 제작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로 협력하고 있다.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2021→2011 소년이그랬다

2011년 5월 2일부터 2021년 오늘까지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밝아 온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십년의 시간도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이제 우린 더 이상 뭘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혹은 더 빨리 뭘 이유를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